

<지원서 작성안내>

아젠다와 세부과제를 확인한 후 지원 분야를 정하고

아젠다 및 세부과제 수행에 기여할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인문한국3.0 사업

〈문명전환기 K인문학의 미래적 전회〉

아젠다 및 세부과제 요약문

<순서>

아젠다	1
세부과제	
위기와 연결	5
역사와 장소	7
개념과 가치	9
지식과 제도	11
문화와 정전	13
융합과 매체	15

1. 총론

<문명전환기 K인문학의 미래적 전회>는 '문명전환', 'K인문학', '미래적 전회'라는 세 키워드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문명전환'은 이 아젠다를 구상하기에 이른 시대인식과 그 인식을 토대로 제시한 학술적·현실적 과제를 나타낸다. 근대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숭한 이견과 저항이 있었음에도 문명 차원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도권을 발휘해온 것은 나날이 발전하는 세상과 성장하는 인류에 대한 약속과 전망이었다. 하지만 인류세, 기후변화, 복합위기 같이 오늘날 널리 유통되는 표현들이 함축하다시피 이제까지의 문명의 진로가 결국 자신의 기본 터전인 지구생태와 함께 인류를 비롯한 숭한 존재들의 삶을 거세게 위협하여 급기야 세상의 종말이 닥친다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에 접어들었음을 더는 부인하기 어렵다. 문명이 도달한 이만큼의 비상한 위기는 다름 아닌 문명 그 자체가 큰 전환을 이룩하는 것 말고는 타개될 수 없는 성격이다. 결국 '문명전환'이란 이 연구 아젠다가 전제하는 시대 인식의 긴박함과 더불어 아젠다가 지향하는 전환의 발본성을 가리킨다.

'K인문학'은 이 연구에서 시대적 과제로서의 문명전환을 탐구하고 진척시킬 주체를 호명하는 키워드이다. 유행처럼 'K'를 붙였다고 오해받기 쉽지만 연구단이 제기한 문명전환이라는 시대인식과 과제가 기본적으로 보편적 성격이니만큼 이 이름은 다른 'K'들이 그러하듯 애초에 내부유통을 넘어 세계로 발신한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문명전환을 향한 뜻 깊은 기여를 둘러싸고 벌어질 전지구적 경합에 적극 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의 K인문학이란 문명전환을 한국학의 핵심 주제이자 지구적 인문학의 주된 의제로 세우는 과정에서 비로소 구성되는 수행적 주체이다.

마지막 키워드 '미래적 전회'(futuristic turn), 바꿔 말해 미래로의 선회(turn to the future)는 그와 같은 과제 수행과 주체 구성이 자연스레 취하게 될 방향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한국학 및 한국 인문학 연구가 과거의 유산을 발굴하고 재해석하거나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쏟기는 했으나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최전선을 기꺼이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최전선의 감당이 무슨 공허한 야심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전지구적 담론과 실천의 현황에서 알 수 있다. 서구의 인문학이나 사상은 세계적 주류의 위상에 값하는 단단한 상호참조체계를 구축한 채 여전히 압도적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의 복합위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전회' 형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멀게는 언어적 전회에서 가까이는 물질적 전회, 사변적 전회, 디지털적 전회, 비인간적 전회, 심지어 보수적 전회 등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빈번해지는 서구발 전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문제의 해결이기보다는 담론적·실천적 무력함에서 비롯된 일종의 증상임을 깨닫게 된다.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문 특히 인문학에서 서구가 가진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상대화되었기에 보편적 지침의 자리는 진정한 미래적 대안을 향한 열린 분투에 맡겨졌다. 이 연구단의 K인문학은 학문적 탈식민화를 자연스레 성취하면서 문명전환의 미래를 위한 대체 불가능한 인문학적 참조체계가 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아젠다의 기본 성격에서 이 연구단이 구체적으로 탐구하게 될 세부 과제 및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 시대가 발본적 문명전환을 요구한다는 판단은 어떤 위기 그리고 기존 위기 대응의 어떤 한계에 근거를 둔 것이며 이 위기들이 갖는 오랜 반복과 차이의 궤적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탈위기 실천의 단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 세부과제 '위기와 연결'

② 근대가 시작된 이래 문명의 중심은 아니었으나 무력한 변방도 아니었던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진로를 일찍이 염려하며 대항했던 역사는 어떠했으며 이 고유한 장소에서 발현된 저항적 힘의 원천과 유산은 무엇인가 ➡ 세부과제 '역사와 장소'

③ 지금까지의 문명은 어떤 개념과 가치들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오늘날의 종말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문명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또는 어떤 갱신된 대안가치와 선도개념이 필요한가 ➡ 세부과제 '개념과 가치'

④ K인문학이 오랜 전통이던 경세적 실천성을 되살리며 전환을 위한 문명적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체제로 재편되어야 하며 어떤 제도들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가 ➡ 세부과제 '지식과 제도'

⑤ 문명전환을 위한 K인문학이 보편적 교양의 지침이자 문화적 토대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정전체계란 어떤 것이며 이미 전지구적으로 향유되는 K문화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 세부과제 '문화와 정전'

⑥ 디지털화와 AI로 요약되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단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문명적 이슈인 바 이 단계에 적응하고 개입하기 위해 K인문학이 취할 수 있는 융합의 방법론과 새로운 매체 활용은 어떤 것인가 ➡ 세부과제 '융합과 매체'



2. 연구 중점

1) 인문학의 실용성에 대한 재해석

인문학의 죽음에 대한 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가치를 역설하는 간헐적 주장들에서도 인문학은 사실상 고갈된 성장동력에 던져 넣을 마지막 연료나 첨단 기술의 상업화를 보조하는 장치 이상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연구단의 아젠다가 규정한 문명전환기, 다시 말해 기존 문명을 떠받쳐온 구조와 이념 전반이 바뀌어야 하는 시대에는 무엇보다 사유의 실험이 중요해지고 따라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를 둘러싼 판단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 연구단은 인문학의 실용성이란 실용에 대한 인문학적 재해석으로 구현되며 그런 재해석은 분명한 시대인식에서 나온다는 점을 실증한다.

2) 지구적 문명담론과 지배적 정동(affect)의 전환

인류세 담론에서 탈인간중심주의, 포스트휴머니즘, 다크 에콜로지 등 전지구적 문명담론의 주된 경향은 위기에 대한 재현과 경고를 대안의 불가능함에 대한 강조와 병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인류의 더 겸허한 자기반성이라는 윤리적 태도를 취하지만 실상 이런 담론적 비판주의는 미래 상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폐허 속에 사는 법을 배우자는 종말서사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이 연구단의 아젠다는 지구적 인문학의 이와 같은 지배적 정동에 저항하고 만연한 문명적 종말서사를 실행 가능한 이행의 서사로 전환하고자 한다.

3) 실천성·보편성 강화를 통한 한국학의 체질 변화

본 연구단이 구상하는 K인문학은 한국학 및 한국 인문학 연구가 과거의 유산을 발굴하고 재해석하거나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 거둔 성과를 계승하되 문명전환이라는 실천적이고도 보편적인 과제를 해결할 자산으로 축적되고 전파되는 데 주력한다. 학술계의 세계적 주류였던 서구 담론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의식하면서도 기존의 관행처럼 그 담론들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데 멈추지 않고 독자적 대안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여전히 잔존하는 학문적 식민성 역시 이런 전회를 통해 완수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학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4) K인문학의 상호참조체계와 플랫폼 구축

K인문학이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과제 해결에 독자적으로 기여하는 작업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상호참조가 실행되는 일이 필요하다. 서구담론이 끊임없이 서로를 참조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고 담론적 역량을 축적해온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개별 사업단과 달리 이 컨소시엄 연구단은 단일한 아젠다를 공유하면서도 개별 세부과제들을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그 과정에서 상호참조체계를 한층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

의 플랫폼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학술과 교육을 연결하는 모델을 생성한다.

3. 연구목표

1) 시대적 과제로서의 문명전환과 '한국모델' 구상

지구생태와 인류의 존망이 걸린 오늘날의 위기를 생각할 때 연구단이 내건 '문명전환'은 그 자체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국가차원에서도 선차적 이슈가 되어 마땅하다. 서구모델, 사회주의모델, 동아시아모델, 중국모델 등이 문명의 대안적 진로를 제시하지 못한 채 현실적으로도 영향력을 상실한 지금, 이 연구단이 제안하듯 문명전환을 분명히 지향하고 실질적 대안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이고도 보편적인 '한국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2) 대안적 문명서사 제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을 선전하던 시점에 팬데믹이 발발했던 것처럼, 비상한 문명의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어떤 열렬한 믿음도 없는 채 기술적 유토피아의 전망을 받아들이거나 거꾸로 이상한 열기에 사로잡혀 종말과 폐허를 말하는 '도착적' 상태에 사로잡힌 듯하다. 문명의 토대가 되어온 서사들이 무너지면서 전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기이한 사회정치적 내지 정동적 사건들은 이제야말로 인문학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때임을 일러준다. 이 연구단의 아젠다는 문명서사들의 혼돈 가운데 분명하고 근거 있는 전환의 서사를 써나감으로써 인문학의 사회적 적실성을 예시하고자 한다.

3) K인문학의 질적 전회

이 연구단은 문명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연구 아젠다로 채택함으로써 한국사상의 전통적 시그너처였던 경제적 실천성과 보편성을 K인문학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자 한다. 이 아젠다는 기존의 한국학 연구 성과를 계승하고 아우르면서도 이를 미래를 향해 돌려세우는 질적 전회를 통해서만 적절히 수행될 수 있다. 컨소시엄 세부과제들의 혼종적 배치와 구성은 개별 분과학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어온 한국학 연구의 관행을 벗어나 창조적 협업이 인문학의 근본정신임을 실천적으로 입증한다.

4) 지식·정전·교육의 체계와 방법론 쇄신

세부과제들이 가리키듯 연구단의 아젠다 성과는 학술적·담론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지식과 교육의 체계, 매체, 방법론, 제도에 대한 탐구와 연결되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시스템과 정전체계 구축에 대한 실험으로 이어진다. 컨소시엄 내 여러 연구소들이 가진 다양한 노하우를 집적하여 실질적인 대안으로 구체화한다.

세부과제 <위기와 연결>은 ‘위기’를 문명사적 성찰을 위한 출발지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탈위기 실천의 핵심을 ‘연결’로 의미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를 ‘지구적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로 규정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적 현실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다.

1. 연구목표

이 연구는 첫째, ‘연결’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탈위기 응전의 주체들이 맺는 관계의 성격을 압축하는 동시에 그러한 운동을 통해 구현된 가치를 규명한다. 둘째, 다언어적·다지역적 연결을 통한 학술과 교육의 통합적 모델을 추구하는 가운데, 보편인문학으로서 K인문학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셋째, 다양한 공공화 프로그램을 토대로 시민사회를 향한 지식공유와 문제해결형 현실 참여를 도모한다.

2. 연구내용

K인문학은 ‘시대적’ 전환을 넘어서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문명전환’ 국면에 봉착한 한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문제화하고 위기 속에서 현상한 사회문제와 세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앞의 책임성을 지향한다. ‘위기와 연결의 K인문학’은 학지의 현실발견력과 문제 대응력의 계발을 통해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K인문학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아젠다의 구현과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 1차년도: “전망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K인문학의 이론적, 방법론적 모색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기존 한국학의 지향을 살펴보고 K인문학의 새로운 위상과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근현대 인문학 담론부터 포스트휴머니즘에 이르는 지성적 조류가 한국 인문학과 교섭하는 양상을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포스트담론, 돌봄 이론, 장애학 등 현재 진행 중인 이론적 전회의 의미를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연결의 K인문학 총서’ 1권으로 『K인문학의 이론과 방법론: 전망의 연결』을 출간할 계획이다.
- 2차년도: “경험과 감수성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비)인간 내면의 복잡성과 사회존재론적 운동을 고찰한다. 전지구적 위기 속에서 출현하는 존재의 욕망, 감정, 감수성, 정동, 감성 영역을 연구한다. 전쟁, 재해, 분쟁, 젠더폭력, 국가폭력, 빈곤 등 현실의 급격한 전환을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박탈된 (비)인간 주체의 자기 변형 및 사회적 연결을 추동하는 의지와 정동을 다룬다. 2년차의 연구 성과는 총서 2권에 해당하는 『경험과 감수성의 연결』로 출간한다.

3) 3차년도: “실천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의식적이고 이념적으로 자기 활동의 선명성을 표명한 주체들의 연결·연대 및 사회·문화·정치적 변혁운동의 자리를 발굴한다. 정체성 정치, 트랜스내셔널한 운동 등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민중권력 혹은 시민권력의 자발적 자기 행사가 갖는 동시대적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화 운동, 여성운동, 퀴어운동 등을 재해석하여 ‘연결’의 정치학과 문화학을 구축한다. 3차년도의 연구성과는 총서 제3권 『동아시아의 역사와 연결의 자원』으로 기획하여 출간한다.

3. 기대효과

본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에 밀착한 K인문학 아젠다의 개발 및 심화를 통한 인문학의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제시한다. 둘째, 학술과 교육의 연결모델 구축으로 K인문학의 내실 있는 순환·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위기와 연결이라는 이론적 틀을 매개로 인문학의 비판적 성찰성을 재발견함으로써, K인문학의 실천적 토대와 근간을 마련한다.

세부과제 <역사와 장소>는 동아시아 담론이 수행해 온 ‘역사와 장소’에 대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갱신할 필요에서 “포스트 동아시아와 변혁의 K인문학”을 제안하며, K인문학이 지향하는 비판적 현실 개입의 성격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1. 연구목표

첫째, 근과거 동아시아 변혁 운동의 연쇄들을 역사적으로 발굴·추적하고 이러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의 의의를 현재적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동아시아 정치에서도 주요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포퓰리즘(populism)의 부상을 탐구한다. 셋째, 근과거와 현재의 변혁 및 정치 운동에 대한 탐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포스트 지정학을 모색한다.

2. 연구내용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은 향후 세계 패권을 둘러싼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정학의 가능성을 사유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포스트 지정학은 K인문학의 새로운 지형으로서, 역내 인민들(people)의 정동적 흐름과 계급 재편, 민주주의의 급진화 가능성을 사유하는 데 필수적 항목이 될 것이다.

1) 1차년도: “변혁의 연쇄와 동아시아”라는 주제 아래, 동아시아 각국에서 벌어진 반체제 운동의 역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변혁 운동 간 상호 연계성 및 사상적 공통 기반을 재조명한다. 1980년대 한국의 반체제운동과 마오주의와의 관계성 등, 한중일 삼국에서 마오주의가 유통·활성화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혁 사상의 동아시아적 공통성과 차이를 검토하고, 이러한 경험이 남긴 부(否)의 현재적 유산까지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2) 2차년도: “서구 인권 담론의 수용과 동아시아 반체제운동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서구 인권 개념을 수용하고 이를 재맥락화·재구성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나아가 이러한 담론적 전유가 1980년대 변혁적 운동 및 동아시아 반체제운동으로 연결된 경로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권 담론이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변혁적 실천의 주요 매개로 기능했음을 입증한다.

3) 3차년도: “포퓰리즘의 부상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서구 및 글로벌 포퓰리즘의 흐름과 비교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포퓰리즘이 전개되어 온 역사적 계기와 구체적 양상, 그리고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포퓰

리즘적 정동이 권위주의적 정치 및 급진적 민주주의 모두와 결합하는 양상을 조망함으로써, 새로운 동아시아의 구상을 위한 ‘포스트 지정학’의 가능성을 사유한다.

3. 기대효과

본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반체제운동의 역사적 유산과 현대 포퓰리즘의 부상을 연결하여, 권위주의적 정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지정학적 상상력과 변혁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포스트 지정학의 이론적 틀을 확립하고, 역내 평화와 지속 가능한 정치적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셋째, 현대 사회가 정치적으로 직면한 글로벌한 도전과 이에 대응하는 K인문학의 동아시아 내 역할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세부과제 <개념과 가치>는 한림과학원이 17년간의 HK사업을 통해 수행한 한국 및 동아시아 개념사 연구의 독보적 성과를 토대로 삼아 개념사의 미래적 전회를 도모한다. 역사적 운동을 이끌며 스스로 중요한 의미 변화를 겪는 '선도개념'에 초점을 두고 근대를 이끈 기존 선도개념들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통개념들을 재평가하면서 문명전환을 이끌 새로운 선도개념들을 탐색하고 발굴하여 문명전환에 필요한 가치전환 논의를 선도한다.

1. 연구목표

이 세부과제의 핵심에는 '지금까지의 문명은 어떤 개념과 가치들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오늘날의 종말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문명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또는 어떤 갱신된 선도개념과 대안가치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놓인다. 세부과제의 수행은 한림과학원이 17년간 HK사업으로 축적한 한국의 개념사 연구를 계승하는 한편으로 문명전환에 기여하는 개념사의 '미래적 전회'를 수행함으로써 K인문학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자 한다. 2024년 한림과학원이 개최한 심포지엄 "대전환 시대, 개념의 생존과 미래"(12월 12일)가 그와 같은 전회를 예고한 학술행사였고, 여기서 근대 선도개념들 몇몇의 향방과 미래를 짚은 바 있다. '선도개념'(Leitbegriffe)이란 시대가 변하면서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운동을 이끄는 개념으로서, 주요한 역사적 변화를 새기면서 스스로도 상당한 의미 변화를 겪는 개념을 일컫는다. 지금까지의 한국 개념사 연구의 주요 내용은 지구적 근대 문명을 이끈 선도개념들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근대 동아시아 형성의 근간이 된 주요 개념들의 기원과 전래, 변화와 발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었다. 세부과제 <개념과 가치>는 그 성과를 토대로 삼아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근대 선도개념들의 한계와 잠재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선도개념과 대안가치를 발굴하고 조명한다.

2. 연구내용

세부과제 <개념과 가치>는 ① 근대 문명의 기본개념들(예컨대 자유/자유주의, 평등, 민주주의, 개혁/혁명, 인간/개인, 노동/계급, 진보/발전, 자본주의 등)이 문명을 이끌 역량을 점차 상실하게 된 경위와 내적 한계에 초점을 두고 개념사 연구의 성과를 재해석·재배치한다. ② 그런 기본개념 중 어떤 것들이 문명전환을 이끌 새로운 선도개념으로 가치를 갱신할 잠재력을 갖는지(가령 민주주의, 연대, 탈/성장 등) 평가하고 그 갱신의 방향과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탐구한다. ③ 근대 문명의 기본개념은 아니었으나 새롭게 선도개념의 위상을 부여받아 마땅한 개념 및 가치(가령 생명, 재생산, 살림, 지역, 돌봄 등)들을 문명전환의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④ 여기에는 근대 이전 시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발원했으나 전환적 역량이 여전히 잠재된 전통개념들(가령 개혁, 민본, 예치, 자연 등)의 재평가·재발굴

도 주요하게 포함된다.

<개념과 가치>가 수행할 연구는 기존의 개념사 연구에 사상적·비평적·실천적 층위를 강화하는 방식이므로 역사(사회사) 분야에서 파생한 융합연구였던 개념사에 비해서도 사상, 문학, 사회학, 문화연구, 비평이론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여 한층 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차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1차년도: 개념사 연구성과 평가 및 주요 선도개념 선정

문명적 위기에 책임이 크거나 위기 해결에서 결정적 무능을 드러낸 근대 기본개념, 문명전환을 위해 새로이 주목해야 할 가치와 선도개념 후보, 재조명하고 재해석하여 문명전환의 자산으로 삼을 가치를 갖는 전통 개념 후보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주요 연구 대상을 평가하고 확정한다.

- 1단계 2차년도: 근대 기본개념에 대한 비판적 점검과 가치갱신

문명전환 및 가치전환의 역량을 준거점으로 삼아 근대 기본개념들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해당 개념들의 생존과 미래를 전망하는 한편, 새롭게 가치가 갱신될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한다.

- 1단계 3차년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통개념의 재평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고유의 전통적 가치와 개념 가운데 문명적 위기 해결과 문명전환의 잠재력 차원에서 회복해야 할 것들을 논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조명하고 보편화할 것인지 모색한다. 문명전환의 잠재력을 준거로 하여 2차년도에서 연구한 근대 선도개념들과 비교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3. 기대효과

- K인문학의 방법론적 다양성 제고: 개념사 연구가 갖는 창의적·융합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여 철학, 문학, 사회학, 문화연구, 비평이론이 긴밀히 연동하는 통합적 인문학 연구방법의 한 범례를 제시한다.
- 지구적 문명전환 담론 선도: 인류세 담론과 포스트휴머니즘, 각종 실재론의 회귀 등 최근 서구담론이 전환의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노정하는 한계를 성찰하고 새로운 선도개념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실천적 전환담론을 선도한다.
- K인문학의 지구적 교류와 확산: 문명전환에 기여할 선도개념과 대안가치라는 연구주제는 명백히 '보편적인' 지향을 갖느니만큼 K인문학의 지구적 교류와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인문학의 실천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 문명전환의 시대에는 정책과 제도에 인문학이 기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문학이 제시한 전환의 비전과 지향, 곧 선도개념과 가치가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인문학의 실천성을 새롭게 정의한다.

‘동아시아한국학’은 지역학과 서구중심적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에 대한 근대적 앎과 지식,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복수적으로 형성되어온 과정을 글로벌한 지평에서 조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대상이자 방법론이다.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의 HK사업 및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K인문학의 역사적 기원을 국제적 지평에서 탐구하는 한편, 비판적·실천적 한국학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인문학 모델의 탐색에 기여할 예정이다.

1. 연구목표

“동아시아 지식·문화 네트워크와 한국학의 공공적 전회”는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한국학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탐구하고, 문명전환기 K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자 제안되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글로벌한 층위의 지식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 관련 학술적·문화적·규범적 지(知)가 이동·접촉·융합·창발되는 과정을 조감한다. 둘째, 동아시아라는 지적 만남·갈등·교류의 장에서 출현하는 사회적·제도적 공통성과 규범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실정화된 지식·문화·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문학적 공공성을 모색한다.

2. 연구내용

① 1차년도: “K인문학의 역사적 자원으로서의 (해외)한국학의 집단전기학적 연구”라는 주제 아래, 특수한 장소에 근거를 둔 복수의 한국학의 주체들에 초점을 둔 집단전기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식민지-분단의 지정학 속 지식인 네트워크의 양상, ‘GHQ의 한국인들’ 등을 한국의 현대사에 끼친 지식인들의 영향을 네트워크의 층위에서 고찰할 것이다. 1차년도의 연구과제는 주로 지식인 간 연결망을 중심으로 K인문학이 글로벌한 지평에서 출현하는 장면을 역사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② 2차년도: “동아시아 지식 네트워크 내 책(지식)의 이동과 학술 고전의 성립”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한 층위의 지식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 관련 학술적·문화적·규범적 지(知)가 이동·접촉·융합되는 과정을 지식(책)의 유목을 통해서 성찰할 것이다. 님 웨일즈·김산의 『Song of Ariran』(1941), ‘동아시아한국학’ 관련 문제적 학술 고전 등 근현대 한국학의 담론적 토대를 구성했던 저서들의 학술적·역사적·정치적 환경과 조건을 가시화한다. 2차년도의 연구과제는 주로 책과 지식, 그리고 담론의 연결망을 중심으로 K인문학이 글로벌한 지평에서 출현하는 장면을 역사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③ 3차년도: “비판적 지식·문화·제도사로서의 동아시아 교과서 네트워크 연구”라는 주제 아래, 학술적 지식이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지적·문화적 규범과 제도로 거듭나는 과정을 고

찰할 것이다. 특히 교과서의 제도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는 시기 동안 동아시아에서 발행되었던 한국, 중국, 일본, 북한, 소수민족 등의 국어·역사 교과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3차년도의 연구과제는 학술적 지식이 제도화됨으로써 담론적 통치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출현했던 지적·문화적 규범의 공통점과 차이를 조망할 계획이다.

3. 기대효과

본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지식·문화 네트워크의 지평에서 K인문학의 글로벌한 위상과 정체성을 새롭게 성찰한다. 둘째, 한국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문화·규범이 공적 담론으로 실정화 되는 과정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인문학의 사회적 영향력의 실재를 고찰한다. 셋째, 한국학의 공공적 전회라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문명전환기의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포착하고, 이에 대응하는 K인문학의 인문학적 공공성과 실천성을 모색한다.

세부과제 <문화와 정전>은 문명전환기 서구 중심의 정전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동시대 기술적·문화적 변화에 조응하는 K인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교육 및 정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대중적 감수성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창출하는 K문화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한층 동적인 형태의 ‘정전 및 문화적 참조체계’를 정립한다.

1. 연구목표

“K문화 네트워크와 대안적 정전”은 K문화와 그 토대인 한국학의 맥락에서 문화와 정전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며, K문화의 정체성과 대안적 정전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학의 정전화·체계화 노력의 역사를 총괄하며 K인문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둘째, 한국문화의 새로운 표준적 규범을 마련하여 문명전환기의 적극적 발신자다운 학문적 토대를 확충한다. 셋째, 그 성과를 의제별 문제 제기와 시민적 교양을 위해 대중화한다.

세계화의 가속화,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정전 체계가 무화된 전환기적 상황에서, 다원적 참여를 통해 형성해 가야 할 새로운 보편과 기준에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본 세부과제는 K문화의 사례를 통해 대안적 정전의 가능성을 구상하고, 또한 정전 개념 자체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글로벌한 지평에서 한국학의 보편인문학으로의 확장·전회를 견인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1차년도: “K문화의 토대로서 한국학의 세계성”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문화권에서 한국학을 창발한 주체들과 그들이 구성한 ‘한국’이라는 텍스트의 내용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대 전환기에 한국의 언어·문화·역사를 연구한 해외학자들이나 식민지 시기에 세계로 진출한 제1세대 한국학 교수자들 등 “한국학의 개척자들”의 생애와 업적을 조망함으로써 한국학과 한국문화가 세계적 지평에 등장하고 인식되었던 양상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문화 관련 총서 집성 및 목차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정리를 수행한다.
- 2차년도: “K문화의 교차성과 혼종성”이라는 주제 아래 K문화의 횡단적 성격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한국학과 K문화의 존재 양상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탐구할 것이다. 기초적 자료조사로서는 서양 중심 정전 체계 속에서 한국문화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했던 시도(세계사상사·문명사 등)를 아카이빙하고, 1930년대에 시작된 한국의 문화·사상 전통 총집(叢集)의 역사(고전국역총서·한국고전문학전집 등)를 목록화한다. 이를 토대로 두 번의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연구성과를 망라한다.
- 3차년도: “K문화, 탈구축적 보편과 대안적 정전”이라는 주제 아래 기존의 정전 개념을 비

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정전 체계를 모색한다.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 글로벌 연결성의 강화를 토대로, 새로운 정전 체계의 가능성을 K문화의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이를 위해 문자 교양 외 문화·예술 교양이 수용·정리되고 한국인의 지식·교양이 생애주기적 통시성 안에서 구성돼 온 역사를 아카이빙한다. 이를 토대로 ‘텍스트의 여행(2): 문화 교양, K문화, (비)디지털 네트워크’, ‘K문화의 테크놀로지와 다원적 정전’이라는 주제 하에 심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3. 기대효과

본 과제 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한 지평에서 K문화 형성과 확산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문명전환의 과정에서 한국학이 다원적이고 유연한 보편·문화적 규범을 제안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유동적이고 다성적인 대안적 정전 체계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한편, 실제 그에 상응하는 정전 재구성 시도를 공모하여 출판을 지원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가 K문화의 확산·수용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조명하고 K인문학 토대 구축 및 확산에 있어 그 적용 방법을 모색한다.

세부과제 <융합과 매체>는 K인문학의 미래적 전회를 위한 연구방법에서도 혁신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인문학을 핵심 방법론으로 도입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심화한다. 한림과 학원, 한국학연구소,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소속 연구진에는 장기간 디지털인문학을 통해 인문학과 컴퓨터과학, 통계학, 지리학이 결합하는 융합적 성과를 국내외, 연구·교육 측면에서 다년간 축적한 국내 대표적 연구자가 결합했다. 본 과제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구축과 분석을 기반으로 K인문학의 방법적 혁신을 성취하고, 전통적 연구와의 상호검증을 통해 인문학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와 연구문화 쇄신에 기여한다.

1. 연구목표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에 따른 학문 간 융합과 매체의 혁신을 활용해서 K인문학의 미래적 전회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K인문학의 디지털 전회를 선도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와 분석도구가 결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둘째, 데이터 분석과 해석을 통해 K인문학의 새로운 시야, 의제를 제시한다. 셋째, K인문학, 디지털인문학을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시아 디지털인문학 글로벌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내용

‘융합과 매체’는 디지털인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와 플랫폼, 분석도구의 구축과 개발(인프라), 데이터 분석과 해석(데이터 분석), 교육과 글로벌 협력을 통한 성과 확산과 커뮤니티 형성(확산) 등 세 영역에서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교육과 AI 확산을 통해 연구결과를 확산시키고 연구의 새로운 모델 탐색과 검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1) 디지털인문학 인프라 구축

인문학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계가독형으로 변형 구축해서 디지털인문학 연구의 토대를 형성한다. 구축 대상은 인문학 문헌 원문, 각종 사료, 이미지, 음성 자료 등이다. 대표적인 과제는 2017~2024년 한림과학원이 구축한 <한국근대잡지코퍼스>의 확장이다. 이 데이터는 식민지 시기 신문잡지 원문으로 구성된 형태분석 코퍼스로서 특정 개념의 장기간의 추세와 의미구조를 단수/복수로 파악할 수 있다. 웹 분석도구를 통해 신속하게 분석결과를 도출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업 기간에는 수록문헌에 신문을 추가하고 시기도 1945년 이후로 확장하고 논의의 폭을 넓혀 <한국현대신문잡지코퍼스>를 구축한다. 나아가 단편적인 디지털화와 온라인 공유의 수준을 넘어 연구목적과 데이터 성격, 사용자 사용 용이성, 분석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2) 데이터 분석과 해석

연구소가 구축·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본격적 분석·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인문학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존 인문학 연구성과의 검증을 통해 인문학의 전체적인 확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개념·사건·지식·문화·현상·인물·학술 등 다양한 범주의 인문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타 과제 연구진과 공유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3) 확산

□ 디지털인문학 교육: 디지털인문학 연구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관심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는 디지털인문학 연구성과와 방법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확산시켜 역량있는 디지털인문학 연구자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형식으로 수행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위해 본 과제에는 디지털인문학 교육, 연구 역량이 우수한 연구자로 연구진을 구성했다. 해당프로그램은 초청강연, 동/하계 집중 프로그램, 문제해결형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준높은 디지털인문학 연구 성과의 산출에 기여할 것이다.

□ 글로벌 협력: 디지털인문학은 글로벌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동아시아,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디지털인문학 학회,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성과와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소(예, 대만대학 디지털인문학연구센터) 등과 협력해서 공동의 시대, 공동의 주제에 대한 연구협력을 추진한다. 각국에서 구축한 데이터 연계도 글로벌협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근현대와 관련된 아카이브, 플랫폼을 연계해서 연구자들이 일국의 시야를 넘은 연구와 상호소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기대효과

첫째, K인문학의 디지털적 전회를 선도함으로써 디지털인문학 연구의 모범을 창출한다. 둘째, 디지털인문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디지털문화에 친숙한 학문후속세대를 인문 인재로 양성한다. 셋째, 디지털인문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K인문학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한다.